

2012년 4월 제2호

재 정 동 향

목 차

I. 국제기구	2
II. 호주(Australia)	3
III. 캐나다(Canada)	4
IV. 프랑스(France)	5
V. 독일(Germany)	7
VI. 그리스(Greece)	8
VII. 아일랜드(Ireland)	9
VIII. 이탈리아(Italy)	10
IX. 일본(Japan)	11
X. 포르투갈(Portugal)	12
XI. 스페인(Spain)	13
XII. 영국(UK)	14
VIII . 미국	15

요 약

- 2012년 4월 상반기, EU, OECD등의 국제기구와 주요국(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들의 재정동향을 조사함
- EU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부채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로존 방화벽 규모를 8020억 유로까지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
- 미국의 상·하원 예산 합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이 하원통과 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Preliminary FY2012) 재정적자를 발표하였음
- 일본의 2012년 예산안이 국회통과 하였으며, 독일은 2013년 예산기준 및 중기재정계획을 승인함
- 프랑스는 2011년 예산집행 결과 및 '2012-2016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을 발표하였으며, 영국은 조세 법령 제정을 위한 2012년 재정법안(Finance bill)을 제출하였음
- 포르투갈은 신재정협약(A New Fiscal Compact)를 체결하였으며, 스페인은 재정적자 목표달성을 위한 2013년 긴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그리스는 2012년 1/4분기 재정집행 결과를 발표하였고, 아일랜드는 예산관련 1/4분기 세입실적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I . 국제기구

1. EU

- 3월 3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부채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로존 방화벽 규모를 8020억유로까지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
 -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통합 대출 한도가 기존 5000억유로에서 7000억 유로로 늘어난 것이 포함
 - 유로존의 방화벽 확대 규모가 G20, OECD 등이 요구한 1조 유로에 못 미치는 수준

2. IMF

- 유로존의 방화벽 확대에 따른 IMF의 글로벌 방화벽 구축을 위한 재원확충에 관심이 고조
 - 5000~6000억 달러 규모의 증액을 통해 실효 가용자금(forward commitment capacity)을 1조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 유로존 자체 방화벽 1조 달러와 함께 총 2 조 달러의 글로벌 방화벽 구축

II. 호주(Australia)

1. 예산·결산 등

- 호주 재무성은 2012년 5월8일 저녁 7시30분 하원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FY2012-13년 예산 발표한다고 밝힘

2. 기타

- 호주 통계청은 3월 계절 조정된 실업률이 5.2%까지 낮아졌다고 밝힘(4.12)
 -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취업자 44,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실업률은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공무원 대량 감원 예상¹⁾ (4.5)
 - 호주 연방 정부가 흑자 예산을 위한 재정지출 감소 명목으로 내달 약 1500명의 공무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밝힘
 - 호주정부의 한 소식통은 7월부터 정부기관별 관리비용 의무 감소율이 최고 5%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음
 - 또한, 2012-13년에 효율성 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를 통해 추가로 5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을 밝힘

1) Sydney Morning Herald

Ⅲ. 캐나다(Canada)

1. 예산·결산 등

2. 기타

□ 장애인 접근성 및 노숙인 실태조사 지원 공표(4.12)

- 캐나다 인적자원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 188개를 신설하고, 접근성향상기금(Enabling Accessibility Fund)에서 총 6억2천만캐나다달러 지원 발표
- 또한 여성 노숙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총 6만1천캐나다달러 지원

□ 행정규제 완화(Red Tape Reduction)를 위한 One-for-One 규칙 시행(4.1)

- 캐나다 재무위원회는 2012년 4월 1일부터 One-for-One 규칙을 시행하여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 및 수익창출 유도
- One-for-One 규칙은 정부가 기업에 새로운 행정규제를 가할 때 동일한 양의 기존 규제를 줄여주어 기업의 행정부담 증가를 제한.

IV. 프랑스(France)

1. 예산·결산 등

□ 2011년 예산집행결과 발표(4.3)

- 재정적자는 GDP대비 5.2%로 전년에 비해 개선됨(2010년, GDP대비 7.1%). 세금인상 및 공공지출 억제로 재정적자 감축에 성공함
 - 총수입은 GDP대비 50.7%로 2010년, 49.5%에 비해 증가했으나 총지출은 GDP대비 55.9%로 2010년, 56.6%에 비해 감소함
- 공공부채는 GDP대비 85.8%로 전년대비 3.5%p 증가했음. 이는 정부 억제목표치인 84.9%를 상회한 수치임

〈표 2〉 2011년 프랑스 예산집행 결과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총수입	49.9	49.2	49.5	50.7
총지출	53.3	56.8	56.6	55.9
재정수지	-3.3	-7.5	-7.1	-5.2
공공부채	68.2	79.2	82.3	85.8

자료: 프랑스 재무부(Ministre de l' Economie, des Finances et de l' Industrie)

- 2011년 결산보고서(RAP: les Rapport Annuels de Performmances)는 추후발표 예정임

□ 2012년 1-2월 예산집행결과 발표(4.10)

- 프랑스 재무부가 발표한 2012년 1-2월 예산집행결과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242억 유로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정수지인 -280억 유로보다도 다소 개선되었음
- 이는 전년에 비해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12.9% 증가한 453억 유로이며, 총지출은 전년에 비해 11.5% 증가한 636억 유로임

〈표 3〉 2012년 1-2월, 프랑스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 유로)

	2010	2011	2월까지 집행결과		
			2010	2011	2012
총수입	274,888	275,226	39,430	40,163	45,350
총지출	425,691	365,328	57,534	57,036	63,606
재정수지(일반회계)	-150,803	-90,092	-18,104	-16,873	-18,356
재정수지(특별회계)	2,000	-626	-3,700	-11,125	-5,973
총 재정수지	-148,803	-90,718	-21,804	-27,998	-24,229

자료: 프랑스 재무부(Ministre de l' Economie, des Finances et de l' Industrie)

□ 2012-2016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 발표(4.12)

- 지난 분기 경제성장률, 산업지수 등이 밝아진 것을 반영해 2012년 경제성장률을 0.7%로 전망함
 - ('11) 1.7% → ('12) 0.7% → ('13) 1.75% → ('14) 2% → ('15) 2% → ('16) 2%
- 프랑스의 2012-2016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은 재정적자 감축과 2016년까지의 균형재정 달성, 공공부채 감소,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강화, 성장과 고용 안정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이에 재정적자를 2012년, GDP대비 4.4%로 감축하고 2016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함. 공공부채도 2016년까지 GDP대비 83.2%로 감소하고자 함

〈표 4〉 2012-2016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

(단위: GDP 대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수입	50.8	51.5	52.1	52.2	52.4	52.6
총지출	55.9	55.8	55.1	54.2	53.4	52.6
재정수지	-5.2	-4.4	-3.0	-2.0	-1.0	0.0
공공부채	85.8	89.0	89.2	88.4	86.4	83.2

자료: 프랑스 재무부(Ministre de l' Economie, des Finances et de l' Industrie)

2. 기타

V. 독일(Germany)

1. 예산 · 결산 등

□ 독일 내각, 2013년 예산 기준 및 중기재정계획 승인²⁾(3.22)

- 2014년 GDP의 0.35% 미만의 신규차입 달성, 2016년 균형재정 달성 계획 목표
- 계속되는 재정건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연구분야 (Bildung und Forschung)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 뚜렷

2. 기타

□ 독일 연방환경청, 2011년 독일의 탄소배출량 잠정집계결과 발표³⁾(4.2)

- 독일의 약 1,640개의 탄소배출권거래의무 에너지시설 및 산업 시설들은 2011년 전년대비 약 1% 감소한 4억5천만 톤 CO₂를 배출
 - 이로써 독일은 지난해의 경기호황(3% 경제성장률) 및 원전폐쇄에도 불구하고 독일연간탄소배출 한도량(4억5280만 톤)을 넘기지 않고, 2008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
- 특히, 에너지 분야의 탄소배출량은 2010년에 비해 감소하여, 대형시설 2%, 소형시설 6%의 감소율을 기록
- 요헨 플라스바르트(Jochen Flasbarth) 연방환경청장은 금번 탄소배출량 감소 성과로 인해 3차 탄소배출권거래 주기 2013~2020년의 전망 역시 밝다고 평가

2) 자료 : 독일 재무부 홈페이지, 2012.3.22

3) 자료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au.mofat.go.kr), 2012.4.3

VI. 그리스(Greece)

1. 예산·결산 등

□ 그리스 재무부 1/4사분기 재정집행 결과 발표⁴⁾ (4.11)

- 2012년도 1사분기 그리스 재정적자는 73억 200만 유로로 재정적자 목표치 85억 9600만 유로보다 낮은 수준
- 1월~3월 정부예산 순수입은 128억 580만 유로로 목표치인 129억 7500만 유로를 약간 하회
- 1월~3월 정부지출은 201억 1000만 유로로 목표치인 215억 7100만 유로보다 낮은 수치

2. 기타

□ 그리스 정부 13억 유로 규모의 6개월 만기 국채 발행 (4.10)

- 평균 수익률 4.55%로 지난 3월 6일 국채 입찰 수익률인 4.8%보다 낮아짐

4) State Budget Execution January - March 2012

VII. 아일랜드(Ireland)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2012년 예산관련 1분기 세입실적 발표(4.3)

- (법인세) 법인세입은 '11년 12월까지 2억 5,100만 유로 징수가 목표였지만, 1월까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3월말 법인세입 징수액은 목표치보다 높음
- (소득세) 소득세입은 전년대비 7억 3,900만 유로(25.8%), '12년 3월말 목표치대비 3억 2,100만 유로(9.8%)로 PRSI⁵⁾의 수입이 소득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증가
- (VAT) VAT 세입은 전망치보다 1억 2,800만 유로, 1분기 말 누적목표치대비 1억 100만유로(3.2%), '11년 동기간대비 1억 8,200만 유로(5.8%) 증가, VAT세율이 2% 증가된 결과로 반영
- (소비세) 소비세는 전년대비 2,400만 유로 감소, 3월 목표치보다 2,800만 유로, 1분기 말 목표치 대비 4,200만 유로(4.1%) 낮게 징수

2. 기타

5) Taxation in the Republic of Ireland Pasadena Refining System, Inc.*:사회보장기금

VIII. 이탈리아(Italy)

1. 예산·결산 등

2. 기타

- 이탈리아 의회는 균형예산준칙(balanced budget rule)⁶⁾ 도입에 관한 헌법개정안의 승인을 논의 중임(4.3)
 - 균형예산준칙 도입과 관련한 3차 논의가 4월 17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본 헌법개정안은 2014년 예산부터 적용됨
- 이탈리아 경제재정부(MEF)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공재정 유지 및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4.5)
 - 당해 연도 공공지출의 예산 조정 시 정부기관이 지출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은 2011년 4분기 재정적자비율(GDP대비)이 전년 동기보다 2.8%로 하락하였다고 발표함(4.4)
 - 정부지출은 234,974백만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하였고, 조세수입은 223,508백만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함
 - 2011년 4분기 경상수지(GDP대비)는 0.1% 적자임

6)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을 말하며, 연간 구조적 재정적자가 명목 GDP 대비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IX. 일본(Japan)

1. 예산·결산 등

□ FY2012 예산 국회통과(4.5)

- 일반회계 세출 90조 3,339억엔의 FY 2012 예산이 5일 저녁 국회통과
 - 3조 7,754억엔을 계상한 동일본대지진 부흥비용을 조달하는 특별회계 예산안도 아울러 통과, 이를 포함한 세출 총액은 약 96조엔으로 실질적으로 과거 최대
- 적자국채발행에 필요한 특별공채법안은 중의원채결을 보류한 상태로 2년 연속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로 예산집행에 돌입
- 4월 1~6일분 필요 경비를 대비하는 FY2012 잠정예산은 FY2012 예산에 흡수

□ FY2012 예산집행조사⁷⁾ 실시(4.6)

- 재무성은 6일 FY2012 예산집행조사 대상사안을 선정, 조사에 착수하기로 함
- FY2012 조사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지견을 활용하는 등 조사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도모하고, 합계 75건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7월 초순 까지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

〈표 5〉 예산집행조사 실시 상황

조사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사건수	46	53	59	57	68	62	63	76	100	65	75
내재무국 조사	3	2	6	4	11	12	10	15	14	7	

7) 예산집행조사 : 예산집행조사란 재무성주계국의 예산사정 담당직원 및 일상적으로 예산 집행의 현장에 접하는 기회가 많은 지방 재무국의 직원 등이 예산 집행 실태를 조사하고, 예산 효율화 등에 대해 개선해야만 할 점 등을 지적하여 예산 효율화 등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

X. 포르투갈(Portugal)

1. 예산·결산 등

2. 기타

- IMF, 포르투갈에 대한 52억 유로 규모 구제금융 집행 승인(4.4)
 - 이번 집행으로 IMF가 현재까지 포르투갈에 지원한 구제금융은 총 165억 6,000만 유로로 증가함
- 포르투갈 신재정협약(A New Fiscal Compact) 체결(4.13)
 - 포르투갈 의회는 재정주권의 일부를 EU에 넘기고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재정협약(A New Fiscal Compact) 비준안을 찬성 204 대 반대 24, 기권 2로 통과시켰음
- 포르투갈 유로안정화기구(ESM)를 7월 조기 출범시키는 방안 승인(4.13)
 - 포르투갈 의회는 유로안정화기구(ESM)를 7월 조기 출범시키는 방안을 승인

XI. 스페인⁸⁾(Spain)

□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한 2012년 긴축예산안 의회제출 (4.3)

- 지출삭감과 세입인상으로 총 273억 유로(GDP 대비 2.5%) 규모의 재정긴축
 - GDP 대비 1.6%의 적자감축과 비기여 사회보장급여, 이자지급, 국가연금 등 법정지출을 위해 GDP 대비 0.9%의 재원이 필요
 - 공공부문 중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3.5%로, 2011년 적자 규모보다 1.6%p를 추가 긴축해야 함
 - 이를 위해 세입인상으로 GDP의 0.8%, 지출감축으로 GDP의 1.7% 재원마련
- (지출삭감) 이자지급과 연금을 제외한 모든 예산 항목에서 삭감이 이루어져 총 지출이 2011년 대비 9.6% 감소
 - 부처별 지출은 2011년 예산에 비해 약 16.9%(134억 유로) 감축, 헌법기관과 연금, EU 분담금 등 기타 항목은 2011년 예산 대비 0.9%(약 5억 유로) 증액
- (세입인상) 법인세 약 54억 유로, 개인소득세 41억 유로, 특별부담금(special charge) 25억 유로 등 약 120억 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 계획

2. 기타

8) 자료출처: 스페인 경제재정부 영문 보도자료 <http://www.minhap.gob.es/en-GB/Prensa/Paginas/Noticiaseningles.aspx>

XII. 영국(UK)

1. 예산·결산 등

□ 2012년 재정법안 (Finance bill) 제출 (3.29)

- 2012 예산안 및 2011 예산안에 포함된 조세 법령 제정을 위함
 - 인적공제 증대, 소득세 최고세율 및 법인세율 감축, 10억파운드 상당의 조세 회피 방지, 과세 표준 확대 등의 내용
 - 조세정책 개선을 위해 각종 협의 및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했으며 예산 기초인 경제 성장과 공정한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2. 기타

□ 조세 실시간 정보(Real time information: RTI) 시스템 시범 운영⁹⁾(4.11)

- RTI 시행으로 근로자의 세금 및 공제 정보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소득 원천징수(Pay as you earn: PAYE)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
 - RTI로 연간 약 3억파운드의 근로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
- 시범 운영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13년 10월에 모든 근로자에게 시행할 예정

□ 임대주택 구매권(Right to Buy) 제도 활성화¹⁰⁾ (4.3)

- 세입자가 공공주택 소유권 구매 시 제공받는 할인을 최대 7만5천파운드로 확대
 - 1980년에 도입된 구매권은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가 할인을 통해 소유권을 구입하는 제도로 최근 할인 금액 축소에 따라 구매건수가 감소함
 - 할인을 인상으로 구매권 제도를 활성화하여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할 것임

9) 자료 : 영국 국세청 보도자료

10) 자료 : 영국 총리실 보도자료

VIII . 미국

1. 예산 · 결산 등

상/하원 예산안 합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하원통과(3.29)

〈표 6〉 결의안 문서의 권고 수준(Recommended Levels) 및 금액

연방정부세입 (Federal Revenues)	\$2,058,604,000,000 (2조 586억달러)
신규예산권한 (New Budget Authority)	\$2,793,848,000,000 (2조 7,938억달러)
예산지출 (Budget Outlays)	\$2,891,589,000,000 (2조 8,916억달러)
적자한도 (Deficits) (On-budget)	\$-832,985,000,000 (-8,330억달러)
부채한도 (Debt Subject to Limit)	\$17,072,810,000,000 (17조 728억달러)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Debt Held by the Public)	\$12,261,337,000,000 (12조 2,613억달러)

2. 기타

오바마 대통령, 버핏룰(Buffet Rule) 의회에 승인요청 및 발표(3.31)

- 퍼핏룰 관련하여 미국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에서 보고서(The Buffet Rule: A Basic Principle of Tax Fairness) 발표
- 주요내용: 버핏 룰의 기본원칙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는 부자들에게 '최저한 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부자증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정도는 되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적용할 세율의 가장 낮은 마지노선(최저한세율)을 도입하고자 함.

CBO의 FY2012 상반기(Preliminary FY2012) 재정적자 발표(4.6)

-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 총 7,800억 달러 재정적자 전망¹¹⁾

- FY2011 상반기 규모와 비교 → 세입 460억 달러 상승, 세출 70억 달러 감소

11) 자료: Monthly Budget Review